朝鮮日報 夕刊 二十二面

社說 蹂躪된 權利의 要求 —히總統의演說—

一

米國大統領루스벨트氏가 所謂 平和멧세이지를 發表한 以來 獨伊兩國의 行動은 世界耳目의 集中點이 되어잇다 더욱이 獨逸의 態度는 昨二十八日夕 히틀러總統의 演說로서 米大統領의 멧세이지에 對한 答辭이라고 하여서 一層世人의 注目을 끌고 잇던것이다 果然 히틀러總統은 루大統領에 應酬하야 滔滔數千言의 長廣舌을 國會에서 吐破하여서 獨逸의 態度를 闡明하엿다 이 히總統의 大獅子吼에 잇서서 그內容을 보면 爲先 米國이 獨伊에 對하야 侵略的 好戰國이라는데 對하야 『余는 일직이 外國의 權利를 侵害한 일이 업다』고 喝破하고 獨逸의 權利行動은 二十年前에 蹂躪된 權利를 回復함에 不過하다고 主張하엿다

二

히總統의 演說要旨를 보면 世界大戰의 終戰協定을 한 벨사이유 條約은 獨逸國民에게 다시 更生할수업는 覊絆을 지어준것은 勿論이요 그當時에 윌손의 主張으로 平和條約의 原則이 된 民族自決主義의 實現에 잇서서도 墺太利의 七百五十萬獨逸人에 對하야 보헤미아及 모라비아의 四百萬獨逸人에 對하야 또는 其他地方에서의 獨逸人에 對하야 極히抑壓한 待遇를하엿다 따러서 獨逸民族의 民族的矜持를 無視하엿다는것을 指摘하엿고 체코의 問題解決에 잇서서도 決코 뮌헨協定의 違反이 아닌事實과 체임벌린英首相의 見解가 相異한 點을 指摘하고 獨逸植民地의 再返還問題에 言及하야 英國이 現在 取하고잇는 獨逸包圍政策은 英獨海軍協定을 無效하게하는것이라고하여서 英國에 對한 여러가지 矛盾과 撞着한 政策을 指摘하엿다

三

그리고 루大統領의 멧세이지에 對하야서는 種種의 不適當한 理論을 反駁한後에 所謂 戰爭을 回避하기爲한 國際會議를 國際聯盟의 實例를 揶揄的으로 言及하여서 無用의 冗談으로 取扱하고 또 루大統領의 對獨멧세이지에 記載된 三十一個國이 直接 獨逸에 安全保障을 要求한다면 相互的이요 또 希望한 期間에 安全保障을 하겟다는것을 言明하엿고 그리고 끄트로 獨逸의 단지히返還要求問題에 言及하야 獨波不可侵條約은 廢棄된것으로 波蘭廻廊에 通하는 道路及 鐵道의 自由使用을 要求하엿는데 이것은 最近 成立된 英波協定에 對應하여서 一矢를 쏜것이라고 볼수가잇다

四

要컨대 獨逸의 內部的으로 成長發展하는 膨脹力은 自然 外部에 向하야 伸長되고 잇는데 이 伸長力은 現狀維持의 立場으로 본다면 國際條約의 違反이요 따라서 侵略行爲로 보이는것이다 더욱이 戰敗國으로서 벨사이유에서 城下盟을 締結할때에 獨逸國民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諸種의 責務를 짊머젓던것이다 二十年을 經過한 今日에 잇서서 獨逸民族 國民의 理想은 히틀러 總統의 領導로서 事實化하고 잇는것이요 이것을 무서워하는 諸國은 큰 脅威를 느끼고잇서서 歐洲의 風…

聖壽無窮을奉祝
天長節祭嚴肅執行

【東京電話同盟】新綠이 香氣로운 二十九日 恒例하옵신 天長節에 天皇陛下께옵서는 天機殊麗하옵시게 第三十八回의 御誕辰 天長佳節을 마지하옵시는데 …

天長節觀兵式
二萬六千精銳를御親閱

【東京電話同盟】事變下에 마지하는 第一回째의 天長節觀兵式은 二十九日 新綠이 香氣로운 代代木練兵場에서 …

中支方面의 海軍航空部隊活躍狀況

히獨總統演說의反響
歐洲危機倍前緊迫
對英海軍協定廢棄는別無影響

佛政界觀測

【巴里廿八日發同盟】佛蘭西는 今番히틀러總統演說에 對하야 表面冷靜한態度를가지고 이를 기다리고 잇던바 히틀러總統이 英獨海軍協定及 獨波不可侵協定廢棄聲明, 단지히返還要求等의 決意를公表하엿스므로 佛政府는 자못緊張하엿는데 一部에서는 히틀러總統의 演說로 國際不安도 鎭靜되게되지안흘가하고 萬一을期待하고잇던바 反對로情勢는 益益緊迫하게되엿다는 第一印象을 佛蘭西一般은 밧고잇는데 佛政界에서는 히總統의 演說要點에 對하야 如左한解釋을하고잇다

一、獨波不可侵條約廢棄 단지히와 波蘭廻廊地域의 返還을 波蘭이 一蹴한데對하야 斷乎한 態度를 表示한것으로 이로써 …

米政界의輿論 豫期하엿던것

【華盛頓二十八日發同盟】히틀러總統의 演說은 豫期한바와가튼스므로 只今으로서는 새로운센세이슌을 일으키지는 아니하엿다 …

獨、米大使館에送達 히總統演說內容을

【伯林二十八日發同盟】獨逸政府는 二十八日 히틀러總統이 國會에서 行한 演說을 루스벨트大統領의 對獨멧세이지에 對한 正式回答書로서 二十八日午後 在伯林 米國大使館에 送達하엿다

伊는全幅的支持

【羅馬二十九日發同盟】히틀러總統의 國會演說에 對하야 伊太利側은 全幅的으로 支持를 表明하고잇다 …

獨伊、昨年에도 루大統領要請拒絕?

【紐育二十八日發同盟】루스벨트大統領은 數個月前 獨、伊兩國에 對하야 …

日獨伊聯繫가緊要
히總統歷史的演說內容

海軍協定廢棄를 獨、英에正式通告

米陸軍參謀總長更迭

南總督 今日發程

政友會代行委員更迭

米陸軍五千萬弗로 戰鬪機五百七十臺購入

八面鋒

今日本紙四面

ギヤエム 自轉車 ¥70.50 フリーズスタンドベル付 カタログ進呈 ツツキ商會

이것이第一! 참으로 惠乃玉 一步進步한婦人科藥

安産湯 天省堂製藥社

朝報案內 アイスケーキ 運轉手 募集 洋服職工募集 丁子屋商品部

普仁堂案內 瘧疾 漢藥 補材 醫生 藥草 京城鍾路二丁目 普仁堂藥房

新肌丸新發明 癩病速治 試用藥無代進呈 東都製藥合資會社

明發!! 第三次大輪式製作機付焼タイヤ 大輪商會

液虫殺 フマキラー

京城新名所의「띄뷰」 朝鮮料理 漢南館

金鶴香油

經濟國策靴 青年訓練靴 三ツ釦靴 青年團服 國防色 警防團服 實用青年 詰衿服

肺患 朝日丸 安東郡禮安

天長節奉祝行事畫報…사진 상은 조선신궁의 국민봉축식광경 중은 총독부의 어진영봉배식 하는 남산우에 예포발사

奉祝! 天長佳節

제삼십팔회의 어탄신을 삼가 마지하는 이십구일의 천장가절은 전국민봉축리에 마침내 도라와다 이날 오전팔시를 천장절국민봉축시간으로 정하야 각가정가라 각자의 직장에서 각각 궁성(宮城)요배를 행하얏다 그리고 경성에서 실시한 봉축행사로는

▲경성부와 국민정신총동원경성련맹합동주최로 조선신궁광장에서 봉축식거행
▲조선신궁에 천장절제전거행
▲총독부에서 봉축식거행
▲남산상봉에서 용산서야포대(龍山西野砲隊)의 준비로 중포(重砲)이문, 야포(野砲)사문을 거러노코 일백일발의 황례포(皇禮砲)를 발사

동 각조봉축행사가 잇섯다

嚴肅한 天長節祭 今朝朝鮮神宮서 執行

京城府、精動京城聯盟主體國民奉祝式도擧行

神域을 震撼한 聖壽無疆萬歲聲

조선신궁광장에서는 오전일곱시오십분에 경성부와 국민정신총동원경성련맹주체아래 엄숙한 천장절봉축식을 거행하엿는데 고교(高橋)경성부윤을 비롯하야 부내각방면에서 약오천명이 오전칠시오십분까지 착렬하야 동오십오분에 주악으로써 식이열렷다 먼저국기게양(揭揚)과 국가(國歌)합창이잇슨후 산전(山田)경성련맹이사장의 옥관봉전(玉串奉奠) 일동의국가합창 산전이사장의 봉축문봉독 황국신민서사제창과 여덟시를 기하야 궁성요배를하고 만세삼창이 잇슨다음 국기강하로써 동팔시이십분경 성대한가운데 식을마치엇다 동여덟시반부터는 역시 조선신궁에서 천장절제(天長節祭)를 중제식(中祭式)으로 집행하엿는데 간밤부터 목욕재계한 아지화궁사(阿知和宮司)이하 전직원 봉사아래 제의(祭儀)가 진행되어 남(南)총독 대야(大野)정무총감 윤덕영(尹德榮)자작 조선귀족대표 이병길(李丙吉)자작 도관대표 촌탕(村湯)농림국장 무관총대 미총(梶塚)군의소장 각도민총대 신곡(神谷)경기도내무부장 경성부민총대 고교(高橋)부윤을 비롯하야 총독부 각국과장과 부내각관공서장과 각학교장 각단체대표등 일백팔십여명이 참렬하엿다 차례로 옥관봉전을 한다음 동아홉시 원만히 제전을 마치엇다 신궁에는 신록의 꽃다운 바람이 나붓기어 한층더 경건한 기운이 떠돌고잇섯는데 오후한시부터는 봉찬회에서 봉축신악(神樂)을 올렷다 아침부터 오는 참배자는 종일끈치지 안허서 사변하제이년에 반드러마지하는 천장가절에 적성을다하야 성수무강을바드러 빛엇다

總督府

천장가절을 삼가축수하는 이십구일 총독부에서는 오전십시 남총독이 총독실에서 부내각국과장과 외국영사단의 축하를바든후 제일회의실에서 어진영(御眞影)봉배식을 거행하엿다 십시이십분부터 남총독、대야정무총감(大野政務總監)이하 유위유훈(有位有勳)자、고등관이상 중추원참의、조선귀족등이 참렬、계속하야 동삼십분부터는 판임관、촉탁이 참렬하야 각각어진영을 봉배하고 엄숙한가운데 식을마치엇다 일동은대홀에 참집하야 냉주로잔을들어 성수만세를삼창한후 산회하엿다

軍司令部

조선사령부에서는 이날오전여덟시오십분에 참모장실에서 중촌군사령관이하 전직원이 모혀서『어진영』(御眞影)봉배식을거행하고 귀빈실에서 중촌군사령관… 판은 판임관및판임관대우자의…

凛凛한行進……今日練兵場觀兵式盛觀

용산연병장의 천장절봉축관병식은 이십구일오전아홉시반부터 용산 중촌(中村)군사령관의 관병아래 대하여거행하고 식을 마치엇다 이날 제병지휘관(諸兵指揮官) 삼택(深澤)부대장의 지휘로 산전(山田) 월택(越澤) 서야(西野) 대전(大田)등각부대와 경장갑차(輕裝甲車) 무선전신반(無線電信班) 군용구통신반(軍用鳩通信班)등의 참가로 행진과 분열식을 질서잇게 진행하야 용맹한 군사들의 늠름한태도를 보엿다 이날 연병장 서쪽언덕에는 각단체와 생도들로 만여명이 참관하엿다 (사진은 연병장에서 거행된 관병식광경)

軌道車가正面衝突 運轉手車掌等負傷

이십구일 아침여덟시반경 동대문밖 창신정(昌信町)경성궤도(京城軌道)정거장구내에서 독섬(纛島)방면으로부터 정거장으로 들어오던 궤도차 오백오호는전철수(轉轍手)의 잘못으로 딴궤도로 들어가 정거해잇든 화차와 정면충돌을하야 두차체가 부서지고 운전수 행당정(杏堂町)이백칠번지의이호 안승묵(安承默)(二二)은 바른 다리가 절골되고 가튼전수 황금정(黃金町)칠정목 구십사번지의 이호 주상엽(朱湘燁)(二〇)과 차장 하왕십리정(下往十里町)오백구십번지 박갑철(朴甲哲)(二三)은 가슴에 타박상을 바더 즉시 부근병원에 데려다가 치료중이나다 행히 중상자가업섯다

漢江에溺死體

이십구일 아침아홉시경 한강까에 삼십오륙세가량되어보히는 조선인남자의 익사체가표착하엿는데 시체는 경성부에서…

廣告

明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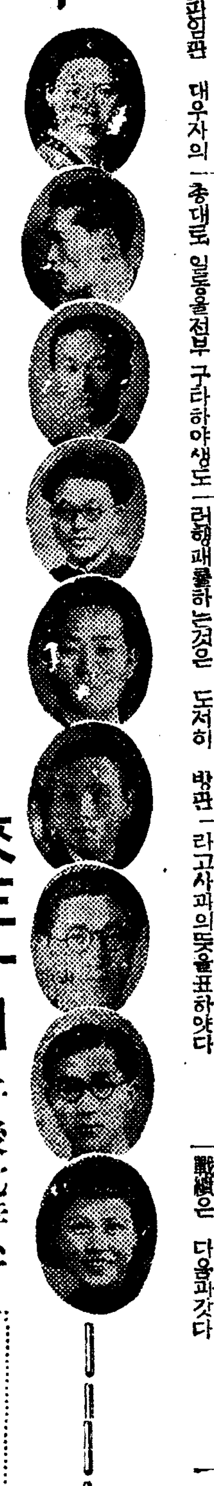
豪華의處女舞臺!

第2回新人音樂會

來三十日 午後七時半

於 府民館

入場料五十錢 一均



出演者氏名

▲金順福(武藏野音樂科出) ▲金昌洛(同聲樂科出) ▲李應元(中央音樂科出) ▲丁福甲(同聲樂科出) ▲殷何宇(日本高等音樂學校聲樂科出) ▲姜良(同上) ▲朴基阿(同上) ▲李銀順(同上) ▲李 (日本大學藝術科出) ▲吳 (東洋音樂學校聲樂科出) ▲韓哲明(同上) ▲金順賢(梨花女專科아노) ▲金玉鍊(同上) ▲鄭和英(同上) ▲黃熙文 日本高等音樂學校卒業 (寫眞順右便上으로부터出演者氏名順과가틈)

피아노伴奏 金元福 李興烈 崔熙南

主催 朝鮮日報社

教練中에興奮하야 全班生徒에게暴行

開城商業加地教諭의不謹愼

【開城支局電話】이십칠일오후한시경 개성공립상업학교(開城商校)에서는 가지(加地)교련선생이 사학년생도 오십명을 데리고 개성공설운동장에서 야외교련을 시키던중 일동중에 교련을 잘못하는생도 한명이잇서서 가지교유가 이것을홈내내므로 생도일동중에서 몃사람이 참다못해서 웃음을우섯던바 가지교유는 지금웃은 생도는 꼿나서라고소리를질럿스나 종시나오지 아니하므로 가지교유는 교련시키던 생도일동을전부 구타하야생도중김영일(金英一)이상원(李相源) 김성각(金性角)외 네명은 두골이깨저서 유혈이낭자하야 일시는정신을잃엇스므로 방금오료중이다

教務主任은 遺憾의뜻表明

이에대하야 부상자중 김영일군의숙부되는 김문희(金文熙)씨가 동교교무주임과 가지교유를방문하고 "공유자의 처지로서 이러행패를하는것은 도저히 방관할수업는사실이라고" "그책임을물엇던바 동교교무주임은 이번불상사에 대하야는 매우유감스러운일이다 금후로일층주의케하야 이런불상사가업도록하려한다고" 유감천만의 뜻을표하얏다

加地教諭談

이번일은 생도를너무사랑하던나머지에서 생긴실수이다 도무지입을드러무엇이리고말할수가업스며 금후로는 특히주의하야 이런일이업도록할려이다 라고사과의뜻을표하얏다

南山頂上에서 百一發의皇禮砲

이십칠일 새벽부터 남산(南山)꼭대기에 오바한 용산부대의 중포(重砲)이문 야포(野砲)사문 한개유판이 발사하는 천장절봉축의 황례포(皇禮砲)는 이십구일정오를 기하야 야포대중위으로 고각(古角)대위의 지휘아래 야포대용사에 의하야 일제히 포문을열어 은은한 포성은 맑게개인 장안하늘을 뒤흔들엇다 오초(秒)마다 발포된 백일발의 황례포는 제일선 산악전을 방불하게하야 경성의 천지에 진동하야 일반민중에게 한청더 기픈감명을 주엇다

하례를바다다

▲鐵道局 철도국에서는 이날오전아홉시 공장과 기관구(機關區)에서일제히 불러나오는기적소리를 마추아서 각기일자리에서 궁성을 향하야 요배하고 오전아홉시부터는 철도회관에서 봉축식을 거행하엿다

▲遞信局 체신국에서는 오전十시반체신회관에 본내·체신소속판서고등관 판임관 고용인총대 기타유위 유훈자 어백여명참렬하에 궁성 요배식을 거행한후 간단한 축연을 베푸럿다

▲專賣局 전매국에서는 오전十시반 회의실에 영천(鈴川)국장이하 … 궁성요배 … 의 식으로서 봉축을 거행한후 냉주잔을들어 성수만세를 삼창하엿다

一千防護團員表彰式

경성부방호단에서는 천장가절을 경축하야 이십구일오후두시부터 경성운동장에서 방호단원의 표창식을 거행하엿다 정각이되자 단원 이천명의 단원이 식장에 정렬한 아페서 고교(高橋)단장의 식사가 잇슨후 우수단원 일천명에게 표창장의 수여가 잇섯고 식을 마치엇다 계속하야 … 엇슨도 하엿다

金東遠氏入京 도서수집가

김동원씨(金東遠)(一五)는지난이십칠일밤에 입경하엿다 김씨는 기부한바와가티 함남정평(咸南定平)서 조선도서수집가로 언문신문의 시초인 황성신문(皇城新聞)을 비롯하야 뒤를이어나온 매일신보와 오늘의 조선일보까지 사십여년을두고 김용이 손수 수집한 신문전부와 가보로 전대하는 한서(漢書)등 삼백여권을 지난이월이십일 본사에 기증하엿는데 이번에 노령을 불고하고 평소에 애호하는 본사를방문코저 단신상경하야 무교정 금장(金莊)호텔에 여장을풀고 이십일일에는 본사를 내방하야 열심으로 참관하고 다음과가티말하엿다

평소부터 존경해오던 방사장의사업에 경의를표하고저 변변치못한 물건이지만은 보내드린것이다 사십여년동안 언문신문을 보아왓는데 언문신문의 발달하는속도는 참으로놀랏답니다 그중에도 조선일보의 바약적발달에는 경탄할따름이다

第二放送 ▲午後六時 唱歌와피아노獨奏 ▲六時二五分 講演 政務總監 大野綠一郎 ▲六時三五分 講演 蠶主復 ▲七時뉴-스 天氣豫報 ▲七時三〇分 歌曲 ▲八時 바이올린獨奏 ▲八時三〇分 唱劇調 ▲九時 野談 ▲九時 라디오드라마(平壤) ▲九時三〇分 뉴-스解說

수일전 이십전후의 학생들과 기리와 무게이야기를 하다가 그들이 실제의 기리와무게에 대하야 너무나 무지한데놀랏다 ▲이에비하면 지금 삼십대이상의 사람들은 물건의기리와 무게를 척(尺)으로 근(斤)으로나마 대강 짐작은하고잇다 ▲즉 삼십대이상의 사람은 기리와무게에 대하야 자기로서의 기준(基準)을 가지고 잇슴에반하야 이십전후의 젊은이에게는 확연한 자기기준의 개념이업다

고 물수잇다 ▲이것은 비단 물건을 재고 다는데만 한정된것이 아니다 손쉬운 예로 우리는 젊은이들의 예의 작법이나 멋지가튼데서도 볼수잇다 ▲이가티자기 기준을가지게되는데는 모든것이 표준되는 시대와 환경의탓이 크겟은 말할것도 업스나 혼란된시대일수록 자기의 기준만은 가지고잇서야만 할것이다

天氣豫報

豫報 今夜는흐리고 小雨가내릴모양이다 明日은흐리다가

昨日最高 十九度九 同最低 六度四 二十九日朝最低 九度五 同正午 廿一度八

▲四月三十日(日曜) 陰三月十一日 ▲壬支 丁酉▲日出 午前五時四十一分▲日南中 午後零時三十二分▲日入 午後七時二十一分▲滿潮 午前十二時四十分▲月出 午後三時五十分▲月入 午前三時十八分▲滿潮(仁川)午前二時五分 午後二時三十五分

鹽原學務局長寄贈盃 爭奪拳鬪對抗戰

今夜、本社講堂에서

拳鬪界의 一流俊銳를로서 陣容을 編成한 青拳과東拳의 對抗戰은 滿都拳의 熱狂的待望裡에 今二十九日 午後七時부터 本社大講堂에서 擧行하기로 되엿는데 兩軍의 實力은 자못伯仲하야 韓一男對 梁致模의 因緣기픈一戰을 筆頭로 金藤基對 龍洞 李敎應對 鄭福基等은 未曾有의 血戰을 豫想케 하는바 今夜 長安의 觀衆은 本社大講堂으로 總集中되고잇스며 이對抗戰의 覇者에게는 鹽原學務局長寄贈盃를 授與하기로되엿다

新人庭球大會에 梁承殷組優勝

朝鮮軟式庭球聯盟主催의 新人庭球大會는 廿九日午前九時부터 三十四組가 參加한가운데 擧行되바 府廳의 尹錫元、梁承殷、宮川組가 殖銀의 尹錫元、殖井組를 이겨 優勝하엿다

【準決勝】 殖銀(尹錫元 殖井) 4…0 銀死(李喜俊 朴甲夏) 府廳(梁承殷 宮川) 4…1 遞鐵(李敬泰 崔禮俊)
【決勝戰】 殖銀(尹錫元 殖井) 2…4 府廳(梁承殷 宮川)

中等籠球리그 第三日各校戰績

日本籠協朝鮮支部主催의 春期中等學校籠球리-그第三日인 二十九日의 夕刊마감까지의 各校戰績은 다음과갓다

京師 36(15 21…6 6)12 福中
徽文 26(17 9…6 12)18 仁商
(審判…李瑞澤 李文鎬兩氏)
(審判…李文鎬 崔海龍兩氏)

내가 기차를 노첫다

내가 경성갈 일이 잇서 멧날전부터 어느시에 떠나갈까지미리알어 두엇따가 오날은 떠나려고 정한 시간보다 十五분이나미리 정거장에 나왓스나 기차는 노첫소 그 리유가 무엇이냐 하면다름이 아니라 어떤 친구에게 필요한 부탁을 하고 떠나기 전에 정거장에서 꼭 맛나자고 약조한 일이 잇섯서 저기서지체하고 기차가 마츰 떠나자 맛나게 되엿습니다 그가마츰 여기 준비가 불전한 까닭이엇습니다 이는 참으로 준가지 예비는 하엿지만은 관단력이 부족하여 나의 본래 예정은 실패하엿고 또 멧퇴변이엿다 예수의 비유하신 말삼과 가리 처당 문을 다들 때에는 홀연히 놀랠자 만호리라 그때에는 자기들의 판단력이 부족하야 준비가 부족한 탓이엿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로 길로 단닐지라도 관계 업다 하고 예수의 말삼을 생각지 안코 이즌것은 "나는 길이오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매암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사람이 업스리라" 함이니 당신들은 과연 준비가 어떠한가?

不景氣모르는 돈버리大王 只今!時期

月收三百圓以上

府、郡、市代理店募集 案內書要三錢切手一枚

京城府授恩町五五 三和商事カレンダー部 振光三一八四 振京二七六 一三番

世界的劃時代的 造血強壯劑(トニクム)國產品完成

エイノ

ノイエトニク

帝大病院、其他公私病院常備御愛用

本劑는優秀的、肉體的의二方面에서吾人體의新陳代謝와造血機能을促進하는것으로서一便消化吸收를旺盛하야血液을形成하고病的組織의治癒作用을하며他方神經系에作用하야서其興奮을靜하야精神的으로營養吸收及活動에卓效를奏하는優良製劑이다

成分 온靜劑、스토리히노스 등아루카로이드、有機作可及亞루제에鐵劑「코-라實」이라고稱하는「코루니-實」을主成分으로하야含水鐵劑及其他를配合한綜合品이다

神經衰弱、精神的重肉體的過勞一般虛弱病後回復、食慾不振貧血症(手術後、産後)또는病後에卓效보인다

價格 一三五瓦入 二圓五拾錢 三〇〇瓦入 四圓五拾錢 九〇〇瓦入 十二圓拾錢

京城鍾路二丁目 京城藥房

女歌手募集

오라! 숨은藝術家들아。그늘에우는新人들아。여기登龍의새벽鍾이울린다。勇氣잇게그대의天才를부르지저라 태평은 既成보다絕對新人主義다。當選歌手는十日吹込出發한다。

募集規定
一、十七歲以上
一、女子에限함
一、女學校卒業
一、流行歌、新民謠
一、試驗曲目自由
一、試驗日 五月十日 五月十一日
一、履歷書、寫眞持參
一、京城鐘路六丁目二七六
大日本蓄音器會社 文藝部長殿

태평레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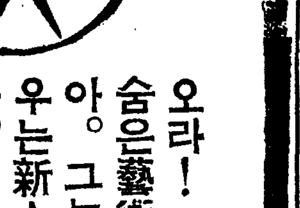
藥用 アモンパパヤ 아몬파파야 藥用파파인크레-무

여드름 죽은깨 기미

는어째서생기나? 여드름의 原因은勿論개기름이지만、여드름의菌이잇서 一種의腫氣로되는것입니다 또皮膚는恒常新陳代謝를하는대、죽은細胞(老廢細胞)가排出되지못하고、살속에숨어잇스면、그것이黑點이되여죽은깨、기미가됩니다。파파인酵素는、이죽은細胞와必要以上의脂肪을溶解除去하고、強한殺菌力과漂白力으로、여드름과죽은깨、기미를업새는同時에살결이純白하여집니다。아몬파파야는이파파인酵素에다가、皮膚營養素와特殊美容藥을專賣特許의方法으로配合하야、數十倍나効力을強化시킨것입니다。三錢切手보내시면 現品見本無代付送

藥用 파파야石鹼

良品廉價



實用高級 ボクス短靴

時價拾五圓짜리를 拾圓에

在來原料整理 大割引投賣

五月末日까지만싸게팝니다

地方은代金引換前金에送料不要勿失此期하시요

京城府府青葉町二丁目四〇 孝昌社製靴部 電話龍山一五七九番

春季受驗期切迫 洋藥全集(六百種) 漢藥全集(五百種) 見本進呈

洋藥 漢藥 藥種商講義錄 新版

京城茶房町二七 朝鮮藥業研究社

朝鮮文으로編輯된唯一의

速修 英語講義錄

▲朝鮮文으로解釋되고 까타카나로發音이正確(內容見本即送要二錢切手)

京城府樂園町五五 英語通信研究會

淋疾 化學療法特効劑

パラミード(金剛)

パラミード는淋菌殺滅의藥劑이올시다 淋疾은 사람을괴롭히는 모든疾患中에가장強敵이엇습니다 그러나이強敵도 本劑에게는降服하고말것이니다 本劑는最近世界醫藥界의寵兒인「パラアミノベンゾールスルフォンアミド」의 最良製品입니다

包裝 粉末 二五瓦 一〇〇瓦 錠劑(〇.三) 一〇〇錠 注射液 (一〇cc) 五管 一〇管 … 五〇〇 五〇〇 …

製造發賣元 金剛製藥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 支店 大阪・奉天

北朝鮮行全南役軍

海岸郡千餘名廿九日에出發

三千六百名은五月中에

【全南支社發】전라남도에서 북조선각공사장에 노동자를 수차에나누어 대량알선하고 잇다함은 旣報하엿거니와 오월이일부터 동시사일까지에 도내각군의 노동자를 여섯번에 나누어 송출할터이라하는데 그수는삼천육백명으로 전남에서 북조선에 알선하는수는 금후에도 일만명을 돌파하고잇다는바 오월이일부터의 출발할 노동자수는 각군별로 다음과갓다고한다

◆五月二日發 咸平郡 二〇〇名 谷城郡 一〇〇名 康津郡 二〇〇名 靈光郡 一〇〇名
◆五月四日發 光州府 一〇〇名 長興郡 三〇〇名 康津郡 三〇〇名
◆五月七日發 順天郡 四〇〇名 和順郡 三〇〇名
◆五月九日發 潭陽郡 二〇〇名 長城郡 一四〇名
◆五月十一日發 務安郡 三〇〇名 濟州郡 一〇〇名
◆五月十四日發 扶餘郡 三〇〇名 寶城郡 一〇〇名 谷城郡 一〇〇名 計 三六〇〇名

【全南支社發】전남도에서는 이민과 노동알선을 하고잇던바 오월부터 다시 대량으로 노동자를 북조선각공사장에 알선하게되엇는데 그와는 별개로 이십구일에 해남군(海南郡)과 무안군(務安郡)에서 노동자일천이백명을 평양(平壤)에알선하게되엇스며 동일에보성군(寶城郡)과나주군(羅州郡)에서 일백오십명의 노동자를 함북(咸北)각공사장에 알선하고 또 광양(光陽)등지에서 사백여명을 동만철도(東滿鐵道)에 알선하는동시에 영암과영광(靈岩、靈光)두군에서 역시 사백여명 노동자가 함북부령수전(富寧水電)공사장에 출발하엿다한다

(나) 당업자에 대하야 충분한지도를하야 단속할것

勞力需給策樹立

咸北調整懇談會서細目協定

【咸北支社發】지난이십육일 함북도청에서 열린 청진지방의노무간담회(勞務懇談會)에서는 노동력의 수급조정을 원활하게수행하기 위하야 다음과가튼 사항에대하야 대책을 세웟다는데 매월한번씩 금후로도 계속하야 월례회를 열어 긴밀한 연락을 취하기로 되엇다한다

懇談事項

一、勞働者離散及 爭奪防止에關하야

(가) 도、부、군경찰서에서는 신중히 협의하야 수급의원활을 꾀하기위하야 노력하고 직원들도 틈만잇다면 근처의 공사현장(工事現場)에 들려 노동자의 이동이 불리한 점을 노동자자신에게 간곡히 설유할것

(나) 당업자로서 부도덕하게 쟁탈을 감행함을 발견하거든 즉시 관계관청에신고하고 그신고를 받은관청에서는 적당히 처치할

(다) 당업자로서는 고용조건의준수기타 특히 노동자의대우개선에 유의할것

(라) 청진노역사(淸津勞役社)에대해서 알선노동자중에서탈출하는자가 잇다면 그사람에게는 다시는 노동표(勞働票)를 발급치말것을 통하고 잇스므로 기업주가 노동자 채용에잇서서는 먼저 그가알선노동자인가 아닌가를 알어보고 만약알선노동자인것이 판명된다면 그전에잇던곳으로 연락하야 바꾸시킬것

二、災害防止에關하야

최근에각노동장에서 부상사건이속출하야 그중에는사망자까지 잇엇다는것을 이즈지못하야 지도상당히나오고잇스므로 부상한본인은 물론가족유족에게 대항하여야 할 의무자의위자료도상당액에달하고 잇스므로

(가) 도、부、군 경찰당국의 직원이 협력하야 직접또는간접(什)반장(班長)에게 재해예방에대한 지도를 할것

專用鐵道를申請

淸津三菱製鋼所에서

茂山鐵鑛二百萬噸輸送計畫

【咸北支社發】청진에 건설중인 삼릉제강소(三菱製鋼所)에 망석을 운반하기위하야 무산철산(茂山鐵山)에 전용철도를 부설하겟다는 신청이 삼릉측에서 당국에제출되엇다 제출된 신청의내용에의하면 조선철도사선(茂山線)의 진화역(珍化驛)에서 채광현장으로 들어가는『이키문』칠분의 망궤철도라는데 동선의개통을기다려 원광(原鑛)이백만톤의 수송능력이 발휘될것이라한다

發動船에大火

船體全燒, 船員은無事

城津灣內靑鶴岬附近에서

【城津】부산부대창정(釜山府大倉町)조선해운주식회사(朝鮮海運株式會社) 소유당지 금성회조점(金城回漕店) 취급발동선흥환(鑑丸)(五一噸七一)이 이십일오전한시쯤 부산으로부터 성진에 입항하야 차축유(車軸油)삼백관(貫)을 하륙(下陸)한다음 중유(重油) 이십관(罐)을 실고오후세시반쯤 청진을 향하야 출범하는 도중 연일대풍우에 섞여 발화하엿는데 불을끌수가 업서서 허둥지둥하는 동안에 때마침부서운바람을 만난불길은 점차로 확대되는 동시에 배는 바람에 밀리어 간신히 등대부근에 닷게되어 선원여섯명은 구사에일생을 어더가지고 겨우 살아나왓스나 불길은 삽시간에 배전체를 휩쌓어 휴연이 충천하는

한기업마한되어 선진만 청학갑(靑鶴岬)부근을 향해할지음 돌에 의하야 … 달

러갓스나 원낙 불길이 맹렬하야 조수 방관하는수 박게업섯는데 적재(積載)한『하이나신』(파리잡는약)궤짝이상자(箱)와 선체전부를 태우고 오후여덟시경에 진화하엿다 원인은 연통에서나온 불똥이라하며 손해는 삼만오천원이라한다

興南에火災

五棟을灰燼·原因未詳

【興南】지난이십칠일 오후다섯시오십분 흥남읍천기리(天機里) 백육십번지 산구선지(山口善治)의집에서 불이일어나 불길은 삽시간에 이웃에빼치어 화세는 대단히 맹렬하엿스나 흥남소방조원의 활동으로 여섯시반경 진화하엿는데 다섯채 여덟호구가 타버렷다한다 원인은 조사중이며 손해는 오천여원가량이라하는데 전기산구(山口)의 부처는 전치이주일이상의 화상(火傷)을 당하야 입원치료중이라한다

物價委員會

全南 古鐵器等價格決定

【全南支社發】전라남도물가위원회에서는 누차회합을하야 각종물가를 결정하여오던바 이번 누보도한것과 오월십일오전두시에 도회의실에서 제유차물가위원회를개최하고 고철기(古鐵器)기타 수건의 최고공정가격을 결정하는동시에『알미늄』과『알마이트』제품공정가격을 개정하는등 오십여종을 결정할터이라한다

南鮮勞働者

百六十名興南着

【興南】지난 이십칠일 남선(南鮮)서오는 노동자 백육십사명이

行方不明의滿人

卅八名이死體로發見

撫順炭鑛까스爆發事件後報

【奉天】기보=무순탄광용안광수갱(撫順炭礦龍鳳坑第四坑)제사호 지난이십팔일오전구시사십분에서 돌연근곤하한갱내에 충만하엿던『까스』가 폭발하야 삽시간에 안비마개의참상을 이루어 작업갱중의 일본인광부 직사하는동시 빈사의중상자가 다수하며 만인종업원삼십여명이 행방불명이라 함은 누보한바어니와 지난이십칠일오전까지 판명된것만하여도만주인사체수용 한것이 삼십팔명 중상자 이십삼명 경상자오십이명이라고한다 사십여사체를 수용한현장에는 유가족들이 모혀들어 대성통곡을하는 비참한광경을 이루고잇다

발사건에 대하야 다음과가티 당국담을발표하엿다

『사고경소에비하야 인명의피해가만흔것은 연소개소(燃燒個所)부근에 굴진작업(掘進作業)흐은 다른작업이 집결한것과시각이일번방(一番方)인오전열시경이라 순회치량등 제작업이몰두한까닭이다』

전기까스폭발사항에 대하야는 참사폭발파동시에 태전(太田)차장이하기라간부가 현장에급행구호대의구원작업을지휘하고잇는바갱내에서 구출한부상자는 직시만철무순의원에수용 응급수당을 시행하엿다 그리고 사고발생당시작업갱중을 하고잇던 갱내반장(坑內班長)종사원은 정촌정(井上孝夫)이하 소지강(小池强)(二三)정상정(井上正雄)(二十)등천부(藤井妻夫)(二二)지미무송(池尾憲松)(二三)촌목중랑(村木重郞)(二三)등 삼명은 직사 기타세명은 빈사의 중상을 입엇다고한다

贈收賄事件言渡

最高懲役八個月

【忠南支社發】현직경관을 중심으로한 증수회(贈收賄)사건의제일회공판은 작보한바와가티 지난이십칠일 대전지방법원(大田地方法院)에서 개정하엿는데 그날사실심리를 마치고 판여검사로부터 각각 구형이 잇섯던바 이에대한 판결언도는 지난이십팔일에 잇섯는데 다음과가티최고팔개월 최하 사개월의 징역이라고한다

求刑 言渡

◆李東漢 懲役一年 〃八個月

(追徵金百二十圓)

◆李東震 〃六個月 〃六個月

(追徵金二十七圓)

◆方五岩 〃八個月 〃七個月

(追徵金二十日圓)(追徵金四圓)

◆白泰鉉 〃四個月 〃四個月

◆李聖求 〃四個月 〃四個月

讀者慰安力藝會

大盛況裡에終幕

【瑞山】본보 복거(福居)지국

瑞山에大賭博團

紳士、青年十七名을檢擧取調

판돈만도數千圓!

【瑞山】충남서산、태안(瑞山、泰安)등지에 가진신사、청년들의도박상습자가 끼어서 도박한것을 엄중처분하고 근절시키고저매일 관헌에서 동정을 계속하야 오던바 요즘 큰도박단을 검거하야 취조중인데 사건의 내용이 크고 복잡하며 판돈만도 수천원이라는데 일체비밀에 부치므로 아직자세한것은 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의하면 대략 다음과 가티 생겨나다고한다

지금검거한사람은 서산면읍내리 이종익(李宗翼)외 사십칠인이라는데 그들은 전후오륙차나 노름한것을 자백하엿다하며 그가운데 서정도(徐廷暾)(假名)은 어려운 처지에 논아홉마지기를 노름하기위하야 팔아가지고 반수이상을 일헛다하며 그중에는 도박상습자로 유명한인지면(仁旨面)사람도 석겨잇다고 한다

女師、農校落成式

公州博物館도竣工

五月五日에同時擧行

【公州】고유도시공주가 기대를 집주(集注)하고 잇는 공주여자사범학교(公州女師)에서는 전조선박학의 재원을모아 초등교원으로 교육을 하고잇는바 그간교사축을 하더니 공사도 일파가 되엇스므로 오는오월오일오전 구시에 동교강당(同校講堂)에서 낙성식을거행한다하며 또교사가 신설되어 이전신축케된공주공립농업학교(公州公立農業學校)도 동일오전십일시부터 동교강당에서 이전신축낙성식(移轉新築落成式)을 거행한다하야 공주는 판(?)유공립학교의낙성에 서향롱기대하고잇는데 또새로이 설치된공주박물관(公州博物館)의 낙성축하회도 동일오후 한시 공주산성공원(公州山城公園)에서 개최한다고 하야 일반의기대가크다

이에 공주관립여자사범학교설치기성회(公州官立師範學校設置期成會)의 발표에의하면 기부금수지결산보고(收支決算報告)는 다음과 파갓다

▲收入

一、金九萬六千二百七十一圓九十五錢也 寄附金收入額

一、金二千九百八十一圓三十三錢也 預金利子收入

合計金 九萬九千二百五十三圓二十八錢

▲支出

一、金九萬七千三百九十一圓十錢也 道廳納付額

一、金一千五百四十四圓二十六錢也 募集諸費用

合計金 九萬八千九百三十五圓四十六錢也

收支差引殘金 三百十七圓八十二錢也 落成式費用에充當

全南鑛業協議會

五月一日에設立

【全南支社發】전라남도내는 수년이래 유명한광산도 만히발전되엇슬뿐더러 그에종사하는 사람도 만허젓스며 당국의산금장려에의하야 그와 관계업자들은 더욱긴장리에잇는바 전남도에서는 오월일일오후한시도회의실에서 따게업자를 모아 전남광업협의회를 조직할터이라한다

私生兒殺害코저

嬰兒耳孔에注毒

豫審終結로公判廻附

【木浦】암태면신지면 윤양리(尹良里) 칠백오십삼번지 오모(吳某)는 자기남편이 김만래(金萬來)(假名)가 동리청두리 김도(金道)(假名)의처 오윤생(吳潤生)과 배가 마지저서 소화십이년칠월경 남아를 생산하엿는데 작년시월에 어서 진아래는 오윤생의집에가서 내남편의 귀한혈육을 너희집에둘수업다하고 어린애를빼앗아가지고와서 어미를 차저 미의것을 물고잇는 어린애를 우는어린것을보매 더욱 질투심이북가려 치밀어 그달삼십일밤열한시쯤 양재물을 귀에부어서 살해하려다 이루지못한 사건은 지난이십일에 예심종결이되어 목포법원지청공판에 회부되엇다한다

特志家諸氏

讚賀會盛況

【靈光】선천지서 보성(寶城)(寶川宿)양교에 대하야 향천리(鄕川里)의 부락민단오천원을양평면마양동(楊光面馬陽洞)씨와 부남면성동(府南面城洞)씨 박시철(朴時哲)씨와 라면외상면안(外上面安平洞)이망식(李光植)씨의 삼씨가 자진하야 각오천원씩 내이기로한것과 또 용천로회(龍川老會)서청학교교사신축을 위하야 당지고재선오천원을 (高在善)씨로거(?)양씨가금교육사를 위하야 역시당지 홍서회(洪瑞化)여사가 금오백원을 내인것에대하야 용천로회에서는 이상제씨의 특지에 감격하야지

西豐縣奧地에

朝鮮人講習所設置

【西豐】서풍현성에서 삼십여리 떨어진 조선인부락 요녕(遼寧)…

남서풍에 잇서교회 예배당에서 단원식(團員式)을 거행하엿다 미국(?)통해내의 소대본가장 수(?)서장(小代國本)… 이하 관계 서는 교장이하 약대원까지와서 석을 성황리에 거행하엿다

錦山에小火

【錦山】지난사월이십칠일 오후세시반쯤 금산군금산면상리『향교골』구장 김도근(金道根)씨의 집행랑에서 불이나서 일부를 전반소시키고 여섯시반에겨우 진화되엇는데 원인은 조사한바에의하면 행랑에잇는 한응훈(韓應勳)의처가 점심을먹으라고 부엌에서 불을때다가 때마침 부는바람에 불이나무에부터 그와가티 순식간에 옴겨서 연소된것인데 이소식을 들은 금산경찰서에서는 즉시 출동하야 진화하게된것이다

榮州에도火災

【慶北支社發】이십륙일오후 아홉시십오분경 경북영주면 영주리(慶北榮州面榮州里)의 중앙선 공사장中央線工事場구내에 잇는 중앙공사장고로부터 발화하야 동창고를 전소하고 동엽시야 동창고를 전소하고 동엽시 이십분에 진화하엿는데 원인은 전기창고아에 두엇든발유에 인화된것이라하며 손해는 삼만오천원이라한다

學級增設費로

二千圓喜捨

久野臨吉氏의美擧

【甕津】황해도 옹진군마산면의 조선인의 보통학교인 옹진공립심상소학교(甕津公立尋常小學校)는 현재삼학급인데 금년래로 일학급을 증설하고저 먼저학부과 각회원들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그에 대하여 교섭중이 엿스나 그에필요한 예산액은 이천오백원이므로 부족히 이것을 각학부형들의 기부로 하려던 터이엇는데 경성부청정(京城府淸溪町)에잇는 구야림길(久野臨吉)씨가 삼산리수동(三山里壽洞)에잇는 영웅장(英雄莊)이 이전에 이사정을 알고 학부형중에는 그공장의 소작인으로 잇는사람이 만흐니 그에잇는지라 파중한부담을 시키게되면 안될일이라는 생각에서 수입전 한편장흔해서 학교당국과 각학부형들은 물론이오 일반사회측에서도 그구야씨에대하야 칭송이 자못 다고

兒童週間에巡廻映寫

【黃海支社發】황해도 사회과에서는 아동애호주간 아래와가티 활동사진반을 파견하게되엇다한다

五月二日長淵邑 五月三日信川邑
五月四日安岳邑 五月五日載寧邑
五月七日海州府 五月八日延安邑

南船口 鶯

항로국청(北靑)출생으로 일정한주소가 업시 돌아다니는 김모(金某)(三一)는 약오십전 청주에와서 경성 모고물상에서 대학생모자를 사서쓰고 모의과대학생행세를하고 시내 박모(朴某)(一八)(假名)라는처녀를꾀여 명약제(明若堤)또는극장 공원가튼데로 데리고다니면서 사랑을속삭이엇다 순진한 처녀는 가짜학생인줄모르고 박하야 귀중한봄까지 바치엇다 이사실을 탐지한 청주서에서는 어자를 검거유치한다음 취조중이라는데 해자처녀는 그가 진짜의대학생인줄만 알엇습니다 라고한단하고잇스나 벌써 때는 늣저비탄의눈물을 흘리고잇다(淸州)

日·獨·英·發明特許 電氣도藥도使用안함 醫學博士 二木謙三先生御推奬

胃腸と健康

自力健康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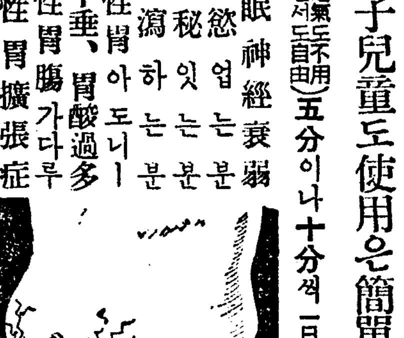
發明特許

▼女子兒童도使用은簡單

(一日二十分以上의 注意도不用) 五分이나十分씩 一日二十分以上

適應症

不眠 神經衰弱
食慾 업는분
便秘 잇는분
泄瀉 하는분
慢性 胃아도니ー
胃下垂、胃酸過多
慢性 胃腸가다루
慢性 胃擴張症
其他、一般病에奏効
胸部病은醫師의指導를受함



自力健康器 家庭用 十二圓 送料內地二十六錢 滿洲十三圓半

申込所 帝國教育會館內 東京神田一ツ橋十三
國民保健振興會
振替東京 七二二一七番 電話神田(四一二〇、四七九四)

美本『自力健康法』을一家一册限 無代郵送함

無代進呈

特約販賣店(第一流の藥房)

京城府 本町一丁目 山岸天佑堂 / 長谷川町 高野製作所 / 南大門通 大熊器械店 / 〃 新井藥房 / 本町四 木村藥房
釜山府 弁天町一 藤田藥舖 / 幸町一 神崎器械店
平壤府 大和町 森田藥房 / 〃 鶴田醫科器械店
鎭南浦 福井里 岸川藥局
木浦 大和町 木下藥局

光州 本町 木下忠藥局 / 羅津 末廣町一 稻垣日本堂 / 羅南 生駒町 稻垣日本堂本店 / 群山 大和町 神林藥店 / 大田 本町二 小林藥房 / 元山 本町 池田回天堂藥房 / 大邱 大和町 佐伯仁生堂 / 全州 大正町二 上田藥局 / 淸津 北星町 中村藥局 / 仁川 本町 北島藥局 / 馬山 宮古町一 石見屋藥房 / 鞍山 北二條 東鄕浩盛堂 / 大連 山縣通り アイフ藥局 / 同 浪速町 村谷洋行 / 同 浪速町 日本賣藥株式會社
總代理店 京城 丹平 奉天 井上 小林

市內及全國一流藥店에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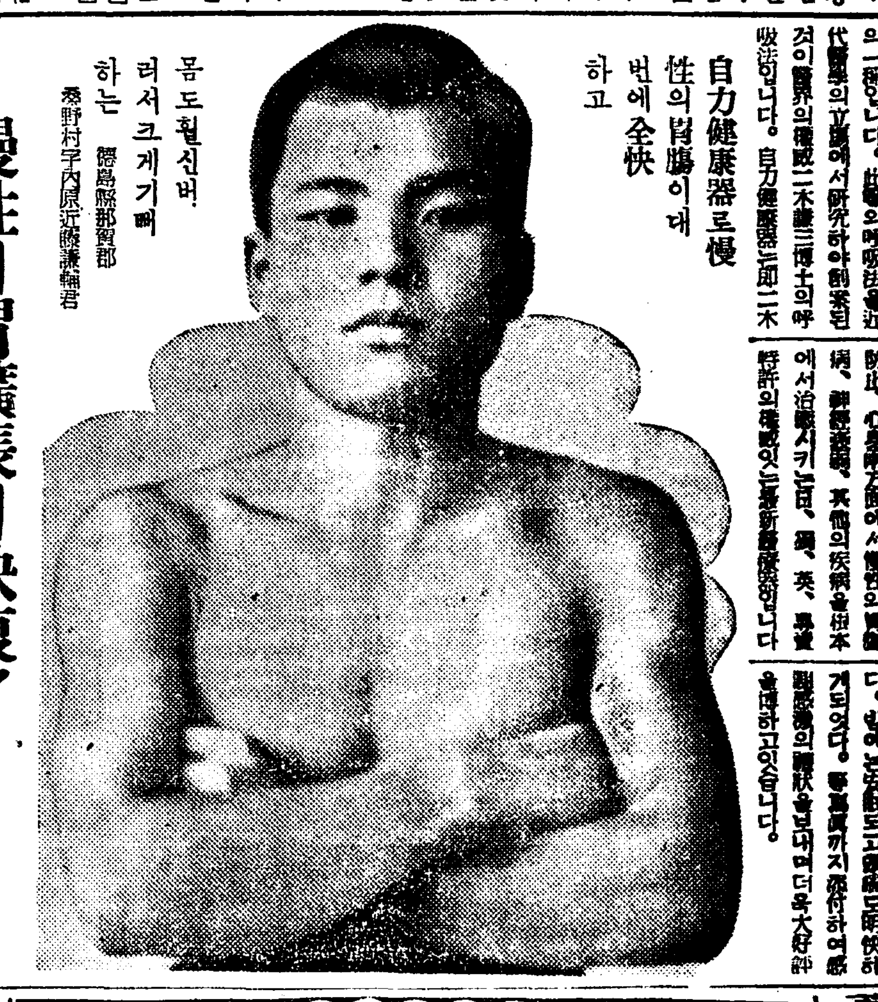
胃腸이强化하고

身體는무럭무럭번다

運動不足과病弱도食慾도增進

밤은安眠! 便通正常、頭腦明快

不老長壽、健康の秘法으로서、古來로부터傳하는腹式呼吸法은現代의白隱禪師의內觀之法等은今日이르는바呼吸法의一種입니다。此等의呼吸法을近代醫學의立場에서研究하야創案된것이醫界의權威二木謙三博士의呼吸法입니다。自力健康器는二木博士의學說을物理化하야女子나老人이라도容易하게應用할수잇스며그리고고進化하게하는結果生기는副作用을防氏、食慾增進、便通도고르고頭腦도明快하게합니다 此器械는外科方面에서胃腸病、神經衰弱、其他의疾病을根本에서治癒시키는데、醫界까지도推奬하여感謝의書狀을보내며더욱大好評하고잇습니다。



몸도훨신벼러서크게기뻐하는 德島縣那賀郡桑野村字內原近藤謙輔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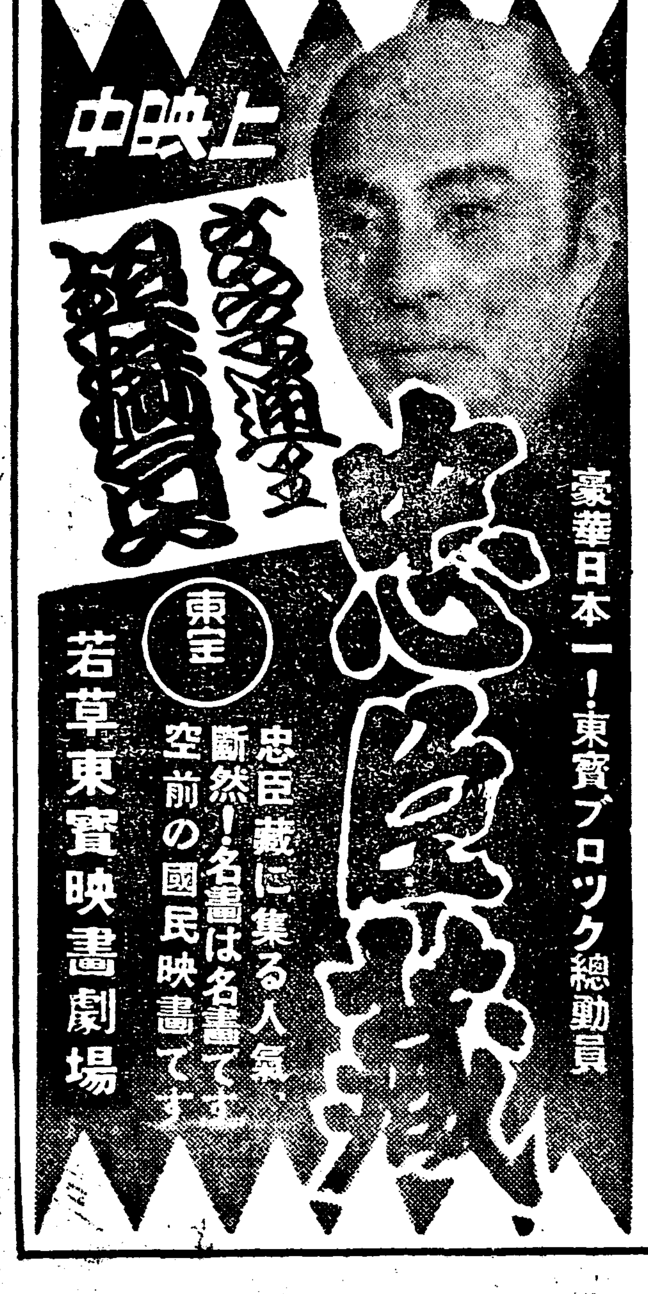
自力健康器로慢性의胃腸이대번에全快하고

慢性의胃擴張이快復!

食慾도增進頭腦는明快

德島縣那賀郡桑野村內原 近藤謙輔君

저는오래동안 胃擴張이생겨서 食慾은減退하고 每日不愉快한날을보내고잇섯습니다 그런데 貴會의自力健康器를使用하온結果 實로놀라울만큼 대번에낫게되여서 食慾이 增進하고무엇이나입에달게되엿고 무럭무럭벌고 또頭腦도 깨끗하게되여참으로 明快합니다 한氣分이오며 이러기뿐일은 업습니다 제經驗으로는 慢性의胃腸病에는 自力健康器가 무엇보다도效力잇는 줄確信합니다



上映中 多多羅 忠臣藏(?) 豪華日本一! 東寶ブロック總動員 忠臣藏に集る人氣 斷然! 名畫は名畫です! 空前の國民映畫です 東寶 若草東寶映畫劇場

日英米製法特許 色白케 되고시픈분 イオス 洗顔クリーム 朝夕의一分間ー거품을내서 洗顔하는것만으로 피부속에코로이드硫黃과沃素가스며드러 기미죽은깨까지도 업서저서 피부가몰라보게곱게됩니다 切手二錢에見本進呈 本舖・東京本鄕東片町一四ー三・イオス研究所

(時價表進呈) 고추가루도매 標苦草製粉 釜山府瀛州町市場通 丸星商會 第一工場 釜山府瀛州町五番地 第二工場 釜山府大新町百番地 電話 九九二 振替 釜山二一九八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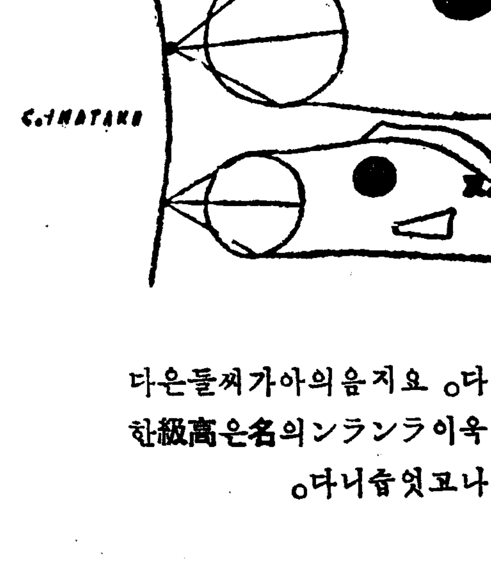
春雷 前後篇 戀は青春の熱病か? 結婚と戀愛の宿命は? 春の雷に似て消へんとして去り難い誠實と愛の運命の展開 五月一日封切 同時上映 "北海の子" 一擧上映 原作 加藤武雄 (婦人俱樂部連載) 監督 佐々木啓祐 主題歌コロムビア・レコード 川崎弘子 夏川大二郞 三井秀男 木暮實千代 近衛敏明 黑田達夫 廣瀨徹 田中絹代 明治座

無代進呈 カレンダー 取引案內書 參該要す 大阪市港區八幡屋大通二丁目 努力社カレンダー部 振替大阪〇九二六番

淋疾新療藥 癒固不動の奏效力 カワカワハルツ主劑 Aトーリト 本舖大阪道修町 盛大堂製藥所 各藥店ニアリ

桃屋의 花らっきょう 春의食卓에 消化를도읍고 食慾을增進함 各리파ー트及食料品店에有함

專賣特許 家庭工業 見本入案內書 無代進呈 東京 マルフク本舖



男子양반이안입니다。요지음의아가씨들은다 직구를쓰십니다。더욱이ラランラン의名은高級한香氣와油質로斷然빛나고잇습니다。

ラランラン チック

優秀品特價提供 在庫豐富 カタロク進呈 京城府元町一丁目 長谷部工場營業所 電話龍山(4)一四三七番 振替京城一八二四三番

讀書界 特輯

出版界의 現潮流

咸大勳

朝鮮의 出版界의 最近動向은 날로 近年에 드물게 보는 豐穰한 收穫의 季節이라 할수잇다 戰時下『紙飢饉이』尤甚한 오늘날 出版界가 이처럼·豪華로운 黃金時節을 맛난것은 이것이 朝鮮文讀者가 慾求하는 讀書熱에 對한 한개의 暗示的인 動態라고할수잇나니 이 出版界의 旺盛은 一步를進하야 朝鮮文化發展에 한『에폭크』를지엇다고도 一言할수 잇는것이다。

出版文化의 旺盛이 그社會文化와 正比例할수잇다는 一言은 우리가 그例를先進社會에서 볼수잇는것이매 一一히 枚擧할餘地가 업는것이지만 明治維新以後今日까지의 內地出版界의旺盛이나 革命以後『쏘베-트』聯邦의 出版界만 보드래도 넉넉히 이例를反證하고도 남음이잇는것이다。

이제 눈을돌려 朝鮮出版界의現狀을 보면『月刊雜誌를』除하고單行本만 보드라도 昨今年을通해 本社出版部의 現代文學全集 新選文學全集을 비롯하야 博文書館의 現代傑作長篇小說全集 三文社의 現代 文人全集 人文社의 全作長篇叢書와 其外數個의 單行本 學藝社의 朝鮮文庫及博文書館의 博文文庫等이 그主要한 出版을 해왓고 其外 個人或書店의 單行本이 나아왓다는 事實을 들수잇다。이제 이것을 總括的으로 보면 그主流가 全集刊行과 文庫本刊行으로 나눌수가 잇는데 大體全集이나 文庫本이 今日 이처럼 盛行되는 理由가 어듸잇슬가

全集이나 文庫는 西洋에는 벌서 오래前부터 잇는일이오 內地만해도 거이十五六年이나 된다 盛行하야섯다 勿論 朝鮮의 出版界는 이만치 뒤떠러저잇기 때문에 오늘이야 이런 現狀을 보는것이지만 全集의盛行은 첫재讀者에게 한全集안에 同系類의 書籍을 모아읽을수 잇게하고 또發行部數를 만히하기때문에 低廉하게 읽게할수잇고 또하나 第一配同本을한 讀者에게 最終回까지 읽도록하는 牽引力을주기때문이오

『文庫本은』頁數가 적고 價格이低廉하기때문에 적은돈으로 넓리 讀者層을 網羅하야有益한 書籍으로 大衆을 啓蒙하자는데 그 意義가 잇스리라고 본다

그러면 어찌하야 오늘에와서 이것이 이러케 關熟한 發展을 하게되엿슨가? 그理由의 하나는 再昨年下半期以來 朝鮮語問題가 一般人心에 刺戟된것이 만엇다는것 또하나는 智識階級으로써 出版文化事業에 努力하겟다는 企業의 抱負가이것을 契機로 일어낫다는것 또하나는 出版界가 只今까지 넘우蕭條寂寞하야 處女地를開拓해 보겟다는『앰비슌』에서 이런 現狀이 나타나지안엇는가한다

그런데 한가지 注目할現狀으로 只今刊行되는 讀書籍의 거이全部가 文藝書籍인것이다 他社會의 出版界를 보면 文藝書籍이 重要한 地位를 갓지 안흔것은 아니나 朝鮮처럼 文藝書籍이 絶對的인 勢力을 갓지는 안엇다 內地의 十二年度

『出版種別을』一瞥해보드래도 政治가 一、三三三、經濟가 一、七〇七 社會가 一、四一四 宗敎가 一、三三二 哲學이 一、一〇六 敎育이 一、八三〇 文學이 二、六五六 敎科書가 二、六五六 語學이 一、三七八 產業이 一、七五一 美術이 一、一〇七 音樂이 七八六 家庭이 一、〇二一 其他 部門에도 적지안흔數의 發行을 보게되는데 勿論이 統計에도 文學의 地位가 가장 노픈것이지만 其他 部門에도 相當한 數字가 잇는것을보면 거기는 各部門으로 出版이 普遍化된것을 알수잇다。

그러면 朝鮮은 어찌하야 이러케 文藝만이 거이 獨占的으로 出版될가? 여기는 여러가지問題가 잇슬것이다 그中의한 課題로는 政治나 經濟나 時事가는것은新聞과雜誌를 通해서現狀을알수잇게되고 또더나아가서는 外國語書冊과 和文書籍에 依해 넉넉히 採取할수잇게 되는理由요 文藝는

『外國文藝나』內地文藝로써 滿足할수가업는때문이다。웨냐하면 文藝는 自己社會의香氣를 담지안흐면 切實하게呼吸하기에 不適하므로써다。그러므로 外國文藝는 우리가 거기서 文藝的營養은 採取할수도잇고그 燦爛한花園에서 즐겁게놀수는잇서도 참으로제땅 제故鄕의 흙냄새를 마틀수업기때문에 文藝만은 獨自的으로 發展하여 文藝書籍이 大多數로 刊行되는것이다。

그런데 또한가지 現狀은 古書 古文獻에 對한 復古的出版傾向이 보히는것이다。벌서 嶺文庫本에서 이것을 散見할수잇기는하지만 今後 某某社의 이런 計劃이 잇는것을보면 사람들은 常 現在와未來에 만 사는것이 아니고 過去를 溯及하여 거기서

『再吟味, 再採取』하는데 또한 人間歷史의 懷古性과 아울러 再進展이 잇는 때문이다。

이것으로 最近의 朝鮮出版界에 動態를 槪觀했다고 보거니와 이에 對한 만흔 示唆가잇기바란다

圖書館의 貸出狀態

▲圖書館에서 읽는 冊들을 본다면 역시 時局關係의 書籍이 만흐며 따라서 產業方面의 書籍도 만히 읽혀지고잇다고한다。

▲時局物로는 支那關係의 것이 壓倒的으로 만흐데『汪兆銘을 말함』『蔣政權은어떠케될가』等그一例이다。醫學이나 法律에關한것은 前과 別般 다름이업스며 文藝書籍도 만히나가는데『보리와兵隊』이라든가『黃塵』이러한 戰爭文學類는 벌서 때를지난感이잇스며 외려 豐田正子의『綴方敎室』가튼 가벼운것이 愛讀된다고한다。

▲朝鮮의 文藝物로는『사랑』이 가장만히나가며『永遠의女像』『찔레꽃』은 예전일이고 金裕貞의『동백꽃』朴鍾和著『錦衫의피』도 자조나간다고한다 (總督府 圖書館員談)

最近의 讀書傾向

崔載瑞

最近에와서 朝鮮서도 讀書는 한新社會現象으로써 드러올리게쯤 되엿다。이왕에도 朝鮮文出版物이 專혀 업섯던것은 아니지만 大部分은 詩集의自費出版程度에서 그讀書範圍는 드러말할만한것이 못되엿섯고 一便童小說類는 比較的廣範한 讀者層을 가지고잇섯지만 嚴正한意味에잇서 讀書階級이라고 부를수는업다。

最近二四年來로 出版을 企業化하랴는試驗이 處處에서 생기게되어 그成果는 잠시 別問題로치드라도 우선 讀書階級을形成할

一基礎一 는 된셈이다。웨그러냐하면 現代社會機構下에잇서 出版企業이 업는곳에 讀書階級은 잇슬수업다。말할것도업시 讀書는 出版物과 讀者의關係가 어느程度까지 正常한取引關係우에설때 비로소 社會現象으로서 確立된다 그리고 各岐의 出版企畫은 좀더 時日이 지나지안코 그將來를 豫斷키 어려우나 各自 出版市場을開拓하고잇는 現狀으로 보아 朝鮮의出版業도 예前의惡夢的悲觀을 一掃하게쯤되엿다。大體로보아 文藝小說의販賣率은 出版景氣가 가장 나뻐던 昭和七、八年頃의 東京出版界의 그것에 比할수잇스리라 생각한다 이것은 朝鮮讀書階級의 굿건한 一面을 表示하는 事實이다。

이런讀書階級에 最近 어떤傾向이 잇느냐하는것이 筆者의課題인데, 섭섭하지만 이質問에對하야 시원한對答을 할수가업다 웨그러냐하면 읽키는冊은 거지반

一文藝一 書籍、그中에서도 小說類이기 때문이다。읽키는程度에따라順序대로적어보면 大衆小說 文藝小說、短篇小說、詩集 隨筆集— 이런順序가 아닐까한다。여기서 多少 意外인것은 最近 評論集이 數三卷 나와서 그것이 꼿잘 나간다는것이다。

朝鮮의讀書傾向이 文藝物에偏重되엇다는것은잘理解할수잇다。그러나 언재까지나이러한境地에滿足할수는업다。좀더智識的이고日常的인 書籍도 陸續出現하야讀者를 發見케되지안어서는아니될터인데 그러한 氣運은 좀체로 보히지안는다。이것은 讀者側에 需要가업다는것보다도 그런書籍을 供給할만한 모든條件이 具備되어잇지안다는것이 더큰原因이 아닐가 생각한다。압서도말한 評論集의 刊行—이것은 讀者側에서 不少한歡迎을 밧고잇다。여러가지 讀物로미루어보아

一評論一 集에對한 讀者의要求는 매우 熱烈한바잇다。이것이 좀더나아가서『임포-마티브』한 出版物에 對한要求로서 나타날 날도 머지안엇스리라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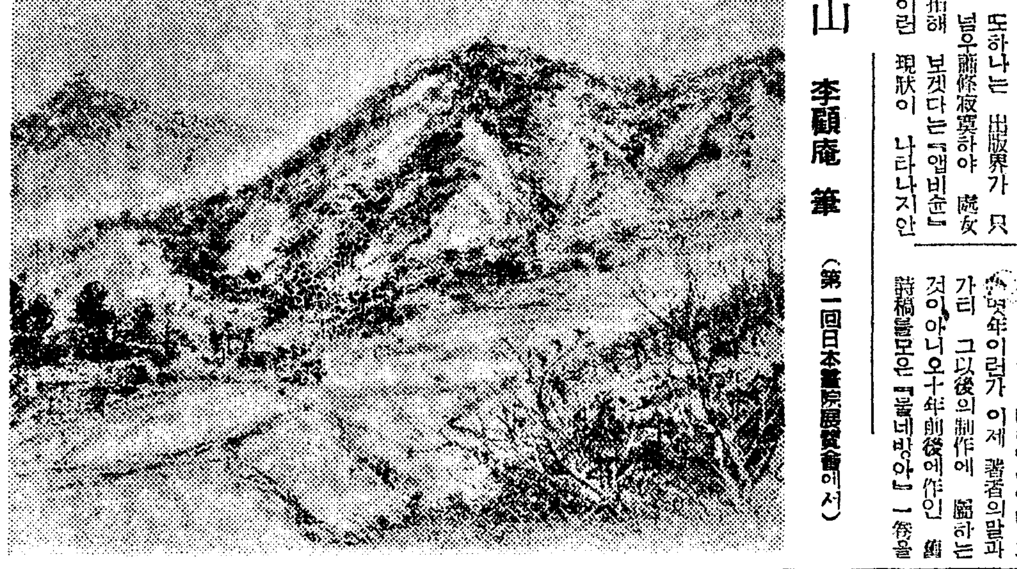
또 한가지 注目할것은 最近 古典類가 젊은讀者들에게 읽키기 시작하엿다는것이다。이것은 古典復興에對한 時代的欲求의發現인것은 勿論 그背後에잇서古典을 廉價로 普及하랴는 所謂 文庫本의出現이 그도음이 되엇슬것은 쉬사리 想像할수잇다。讀者는 古典愛好를 一時的流行으로서 끈치말것을 바라는同時에 出版業者는 이 千載一遇의 好時期를 惡用치안토록 明察하는바이다。

朝鮮讀書階級에서 新聞雜誌가 가지고잇는 地位도 看過할수는업다。우선 新聞學藝面으로 말하면 從來 朝鮮評壇을 代表하야 文藝評論第一主義로 나가던 新聞이『저-나리즘』의原則論에 따라 紙面을 讀物化하려는 傾向이 잇는데 이것이 讀者에게 어떠케 바더드려질른지 左右間 朝鮮선 新聞이 原則論만 가지곤 해나갈수업다는것은 新聞自身이 第一 잘 알고잇슬것이다。그리고

一雜誌一 는 그間變動이 만흐나 아직도 永續性이 保障된것이 멧개가안되고 또 그들月刊誌가 果然讀者大衆의 智識的欲求를 채워주는지 疑問이다。但 娛樂이나創作方面에잇서선 改善의 흔적은 顯著하다。

끄트로 內地出版物中에서 어떤것이 第一만히 朝鮮讀者에게 읽키우는가도 重大한問題인데 文藝小說이 筆頭에오를것갓다 大衆小說이 생각한것보다는 읽키우지안는다는것은 注目할點이고

一戰爭一 文學 其他를 합한 時局關係文學이 將來 朝鮮에 얼마나한讀者를 開拓해나갈른지 興味잇는問題다。左右間 事變下에도 不拘하고 讀書熱이旺盛하다는것 그리고 讀者가 次次로 實속잇는冊을要求한다는것은 朝鮮讀書界를爲하야



山 李顧庵 筆 (第一回日本畫院展覽會에서)

新刊評 異河潤氏詩集 "물레방아"

☆…詩歌集『물네방아』의 著者는 일즉이 譯詩集『失香의花園』을 文壇에보내여 萬丈의氣焰을 吐한일이잇다 그동안 十年이런가 이제 著者의말과 가티 그以後의制作에 屬하는것이 아니오 十年前後에作인 舊詩稿를모은『물네방아』一卷을 손에드니 스스로 感慨無量한 바가잇다。『내가 詩神을 거의 背反한지 五年、文學을 거을리해온지 三年、職責의 義務는 余裕업시 나드모르게 十年前後의舊稿를 모아보고십흔 衝動이 자못 커젓다』는것은 著者의 眞實한 告白이어니와 事實 이詩集은 順序로서보면 譯詩集『失香의花園』을압서서나왓서야할것이엿다 나는著者가 譯詩에 着手하기 벌써 以前에『물네방아』의詩人이엇고『老狗의回想曲』의 詩人이엇던 事實을잘알고잇다。譯詩人으로서의異河潤氏 乃至는 또詩人으로서의 그의名聲에 對해서는이미 世間에 定評이 잇는바이니 다시말할를 避하거니와『물네방아』一卷은 말하자면 압날의 異河潤氏의 詩心을 비表하는著者의 名聲이라고도볼수잇는것이로되 우리가맛보는그素朴 그自然 그靜謐그閑素는 그外의 모든詩의基調가되며 句句行行에 躍如하다 詩歌集『물네방아』는 本詩六十七篇外에 歌謠詩四十餘篇을附加하고잇스니 어는著者가한동안『레코-드界』에關係한데서 생겨나온『副產物』임에는틀림업스나卑俗에 빠지기쉬운流行歌謠에對하되 恒常著者의努力이 普通이아니엿다는것만으로 外道인나로서도 알수잇다고생각한다。어方面에關心을두는이의 必讀의書임은 勿論이다。

★…끄트로 一言添하고저함은『詩神을거의背反한지五年』前著者가 웨 어제새삼스리 十年前後의舊詩稿를모아보고싶흔『衝動』에부듸첫는가 하는點이니 이것은 實로 異河潤氏의 文學에對한 再燃燒를 意味하는것으로 우리의 著者에 對한 今後의期待는 자못 크다。올날의 그에게 觸望을 품는이는 勿論이오 詩人으로서의年代로보드라도 相當히 긴 經歷을가진 이詩人의 處女詩集인지라 萬天下讀者의 興味를 끄을기는 必定의事인줄 確信한다。삽가 여기 一讀을勸하는바이다。더욱 靄伯具本雄氏의 裝幀은『물네방아』의牧歌的情調를 高調하고잇스니이 美本은 그저 書架에 끼저두어도 그裝飾價値가 滿點인것을 나는 保證하겟다。 靑色紙社發行 定價一圓二十錢

金晉燮

어떠한冊이 잘팔리나?

◇朝鮮文書籍의 一般販賣狀態를 보면 大略다음가튼順序로 팔린다고한다『사랑』(李光洙)『無情』(同)『찔레꽃』그리고 詩集評論集은 如前히 팔리며 最近의 文庫本으로 잘 나가기는『金笠詩集』『春香傳』等이다。

(東光堂主人 談)

新刊紹介

▲農業朝鮮 五月號 發行所京城府堅志町一一 大同出版社 振替京城一〇二一九番 定價二十錢 送料一錢

▲鑛業朝鮮 五月號 發行所 京城府堅志町一一 大同出版社 振替京城一〇二一九番 定價二十錢

▲朝鮮工業協會會報 三月號 發行所 京城府長谷川町 京城商工會議所內 朝鮮工業協會 振替京城一六九五四番 定價二十錢

▲活泉 五月號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三丁目三五 東洋宣敎會聖潔敎會出版部 振替京城一一五五〇番 定價二十錢

全朝鮮の…… 獨學青少年諸君!!
無學は男の恥
自宅を學校に 僅か一年 でヤス〳〵と 全科卒業!
立身出世の始めは まづ中學卒業から

最新 中學講義

どこよりも會費が安い……
どこよりもわかりよい……
どこよりも卒業が早い……

中學 ◇諸君の頭上に輝く徽章◇

◇小學校 だけを年々出る方は何十萬人とあるが、不幸にも家庭の事情で上級の學校に行けず、スグ實社會に出る人や家業の手傳ひをする方も澤山ある、かゝる有爲の若人が、小學以上の勉強を續けず無駄に日を過ごす事は當人のためのみならず、躍進日本のためにも悲しい事だ。

◇今日の 實社會で成功するには實際小學校を卒業しただけの學力では充分でない。複雜なる社會の第一線に立つて活動するにはどうしても中學程度の學問がなければ決して大成しないのみならず將來の生活さへも不安である

いますぐ速成科へ入會すれば……

本年中にはヤスヤスと卒業ができる!!

◇しかも 家庭の境遇で中學校へ通學出來ず希望に燃えながら煩悶してゐる人はどうしたらよいか、それには本校の最新中學講義錄で勉學するのが一番よい。最新中學講義錄は世間に澤山あるが、僅一ヶ年(速成科は半ヶ年)の特急スピードでスラスラと愉快に面白く卒業が出來るのはこの最新中學講義錄を措いて他にはない。

◇入會す ると毎月二冊づゝ立派な講義錄を東京から全朝鮮の諸君へ送本し別に機關誌を一冊宛送本するから毎月三冊づゝの配本となり自宅にゐて家業の傍ら朝晩で僅一ヶ年でヤスヤス中學全科が卒業出來る。

◇學科目 は左の通り。
▲修身 ▲英語 ▲幾何
▲公民科 ▲英法 ▲三角
▲國文 ▲英作文 ▲博物
▲漢文 ▲英習字 ▲物理
▲作文 ▲歷史 ▲化學
▲習字 ▲地理 ▲農業
▲文法 ▲算術 ▲工業
▲圖畫 ▲代數 ▲體育

このやうな新式な通信教授法はスピード時代にふさはしい理想的組織であつて本校の最新中學講義錄の外にはどこにも類じてない。即ち中學校正科を全部網羅し、課程を澤山に入れ講義は親切平易を第一として、全く面白く誰にもわかりスラ〳〵と勉強ができ、質問があれば何百回でも分るまで東京・朝鮮先生がテキハキと郵便で明快に責任回答する。

毎月 講義錄……二册 機關誌……一册 合計三册づゝ配本し 學費僅に一ヶ月一圓

◇大特典 會費は右に示した通りでどこよりも安く實に恵まれた學生諸君の爲に思ひきつた奉仕的廉價でなくて何であらう 尚この上に奨學金や英和辭典、漢和辭典の贈呈、日曜無料講習會等を初め他の會では到底マネの出來ない、いろ〳〵な大特典がある。

新・學・期・開・始
內・容・大・刷・新
會・員・大・募・集

今や昭和十四年度新學期開始さる 今こそ獨學開始のチャンスである 少年老い易し、後悔は先にたゝず 勉學は若い時に限る。されば諸君本年はぜひ此の完備せる理想的の最新中學講義錄に入會して將來立身成功活躍の基礎を作りなさい。

見本無料進呈 ハガキで申込次第見本規則一部無代進呈す。後では忘れますから今スグ請求しなさい

東京市牛込台町六 大日本通信中學校 朝鮮課

五萬足限り優良ボックス皮製革靴最後の大特賣

御注文は御手紙にて足型及足袋文數明記の上御申越下さればば代金引替にて御送りします

堅牢無比 青年訓練用總革靴 此ノ靴ハ丈夫ナコト軍隊用靴ト同樣ニ製法モ軍隊式ニテ原料ハ上等ノ甲部ハボックス皮デ底ハ極厚牛皮ニテ金鋲數十個爪先ハ打込金具ヲ打チ込ミ踵ハ鐵ペン金具ヲ打込ミアリマス 耐久力軍隊靴同樣デ 十文ヨリ十二文迄 一耐久本位一 一足 八圓九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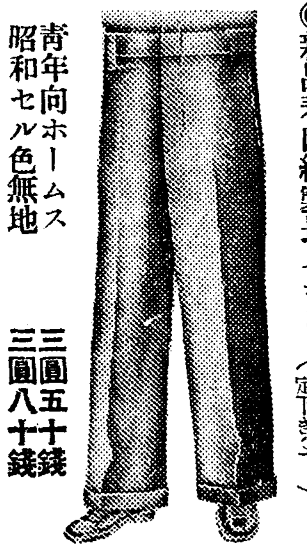
鬼三枚底 學生向總革靴 此ノ靴ハ耐久本位ヘメ底ハ三枚重ネ牛革厚底 甲ハ上等ノボックス革ニテ最新式機械製ノ丈夫向キ經濟的耐久靴 十文ヨリ十二文迄同價
鬼三枚 短靴 一足 八圓五十錢
鬼三枚編上靴 一足 九圓

紳士禮服用 高級總革靴 極上等革底品質保險 高級職人ノ手製ニテ原料等ハ何レモ最良品ヲ特選 十文ヨリ十一文迄同值 深型靴 十一圓三十錢

流行尖端 總革フレンチ型 エナメル付九十錢高 上等革底
フレンチ編上靴 九圓三十錢 十文ヨリ十二文迄
フレンチ型短靴 八圓八十錢

エナメル付舶來ボタン付 短型靴 九圓八十錢

名古屋市千種區吹上本町 合資會社 金城商會販賣部 電話千種 一七八三番 一七八四番 (振替名古屋一七六)



◉新品春向綿製長ズボン (大中小御指定下さい)
青年向ホームス 三圓五十錢
昭和セル色無地 三圓八十錢

◉中古純綿霜降小倉學生服 (洗濯修理濟)
最上一着値
一年生 一圓三十錢 四年生 一圓六十錢
二年生 一圓四十錢 五年生 一圓七十錢
三年生 一圓五十錢 六年生 一圓七十錢
高等用 一圓八十錢

名古屋市中區流川町一 卸下品 一手販賣 中京商會 カタログ進呈 電話中四四七〇番振替名古屋一三三一八番

特許 石油ランプ向下 特約募集

型錄進呈 八分芯用十六燭光 合名會社 柴田商店 名古屋市中區古渡町四 振替名古屋二二三一 電話南二一二一

レモン果汁を生のまゝお肌につけるよりは (레몬과즙을 그대로 피부에 바르는것보다는)

크림으로 精製한 편이 美肌効果가 훨신훌륭하다……

何故인가……

1 古來레몬이 美肌効果에 훌륭하다고 定評이잇는것은 果汁中에페쿠친이라는 强力한 美肌素가드러잇는 까닭입니다……

2 그러타고 레몬果汁을그대로바르면 큰일입니다大體로果汁은 强한酸性으로 또皮膚에害로운 色素를가지고잇스므로……

3 이天然의美肌素에다 貴重한皮膚의 榮養素라노링을配合하야 이것이먼어떤 皮膚에도조타고 保障하고 생겨난것이『우데나레몬』

4 이만큼말씀디리면 얼마나効果가조흔가는 써보시고首肯하시는것이 第一捷徑입니다。더우敏感한봄의 皮膚에 꼭適合합니다……

國產最高品

一家に一つ必要なクリーム

•여드름 보로지를 豫防한다!
•餘分色素를 除去 白色케한다!
•살결이 거친분의 化粧下에!

ウテナレモンクリーム (우데나레몬크림)

14.4-3.5

尿道內에는 이와가티 無數한 淋菌이 潛伏하야 繁殖하면서 內攻해가는데… 을 徹底的으로 殲滅함에는 素人의局所療法이나 一時的塗糊藥으로는안된다

效果가速한 安全療法

리베-루는 特殊한 高比膜으로 吸收가 極히 速하야 服藥五六時間으로 금방 尿는 靑色으로 變하고 强한 리베-루臭를 發散하야 排泄하고 이때부터 벌써 快感을 感覺케됨 即 이靑色의尿는 殺菌消炎利尿鎭痛의 綜合作用을 發揮하고 粘膜內에繁殖하고잇든 淋菌은 撲滅되고 止痛止膿은 그날로 體驗됩니다 리베-루는 前部尿道를 目的으로하는 注入、挿入、洗滌等素人이 行하는 局所療法과가튼 後部尿道로 淋菌을 逆送하는 危險이업고 世間에흔히잇는 副作用에依한 內臟障害의 憂慮가 업고 急性에나 慢性에나 短時日로 安全히 治療할수잇는것은 本劑가 자랑할수잇는 特徵입니다 리베-루는 全國藥店에서 販賣함 萬一品切時는 本舖로 申込하라-送料不要

定價 一週日分…二圓半錢 十日分…三圓半錢 十三日分…六圓 二十日分…十二圓

各藥店에서 販賣함

大阪市南久太郎町二 本舖 竹村製劑所 振替大阪三六〇番

優秀治淋藥 리베-루 (リベール)

사면바리 合잔·水虫 세-킨 문질너어두면 자낫습니다

試藥無料進呈 問合先本舖 二十錢 五十錢 一圓 大阪南久太郎町 竹村製劑所

各藥店에有